

기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아파트 화재 더 이상의 인명피해 방지

1.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
지난 5일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에서 새벽 시간대 발생한 화재로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부모가 출근한 후 불과 15분만인 새벽 4시 15분경, 거실 컴퓨터 등 연결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안방에서 자던 자매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언니(10세)는 당일 사망, 동생(7세)은 치료 중 다음날 사망했다. 이러한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전기시설 등 점검도 중요하지만, 전기나 가스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소지 가능성이 언제나 잠재해 있는 주거시설에서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 발생 사실의 신속한 인지가, 대피나 조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2021년 서울 미아동 아파트 일가족 4명 사망, ▲2022년 부산 해운대 아파트 일가족 3명 사망, ▲2023년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6명 사상(사망 2, 중상 3) 발생 등 대부분 새벽 시간대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아파트, 주상복합, 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983건이며, 이로 인한 사상자는 560명, 재산피해는 약 25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3,36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며, 매일 9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고 매주 1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2. 아파트 거주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중요성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에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곧 생명과 직결된다. 초기 화재 진화용인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 등)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거주자의 화재 발생 사실에 대한 신속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거주자가 잠든 시간대에 발생하는 만큼, 초기 인지를 통해 대피와 초기 진화가 가능해야 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 한계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구조적·운영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로 구성되며, 수신기나 발신기는 관리실이나 경비실 또는 복도 등 공용부에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구성 요소의 단선이나 고장 시 전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비상방송설비 역시 연동이 정지되면 경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둘째, 세대 내에는 감지기와 스피커만 설치되어 있어, 실제 경보를 작동시키는 발신기는 계단이나 복도에 위치하게 되며, 이중문이나 실내 출입문 등의 구조로 인해 경보음이 세대 내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부재중 세대에서 오동작이 발생한 경우 내부 접근이 어려워 즉각적인 복구가 곤란하며, 점검업체 및 소방관서에서 보완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고장 및 보수 기간 동안에는 설비의 상시 정상 유지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다음호에 계속)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김선규

앞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들은 프란시스 베이컨을 '권력욕에 사로잡힌 철학자'의 대명사로 지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임신출세를 향한 그의 행태가 실제로는 필생의 목표인 6부작 『학문의 대혁신』을 완성하고, 관찰과 실험에 바탕을 둔 학문을 진흥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어떻게 정치에 대한 야망과 학자로서의 욕망 사이에서 늘 방황해야 했던 베이컨이 오래도록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은 것은 결국 학문에서 이룩한 업적 때문이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36세 때에 『수상록(隨想錄)』(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적은 글을 출간하여 문필가로서의 명성을 굳혔는데, 이 수필집은 실로 세계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주요 작품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맥베스』 등이 있음)가 실제로는 베이컨이었다는 설이 있다. 심지어 학계에서조차 "문학전체 셰익스피어가 사표까지 출신 청년이었을 리 없다"며,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극작가 크리스토퍼 말로우, 옥스퍼드 백작 등이 진짜 셰익스피어였

강성훈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버 '강성훈 철학티비'



출세의 달인-베이컨(4)

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이 세계에서 영어로 쓰인 작품 가운데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갑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 교육조차 받지 않은 그가 과연 주옥같은 작품들을 혼자 집필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대해, '셰익스피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이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숨겨진 아들로 추정되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 이름이 셰익스피어였다'는 설이 있다. 또 "대문호들의 비밀 창작클럽의 이름이 셰익스피어였고, 그 이름으로 계

속 책을 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근거로는 우선 셰익스피어의 일대기(一代記)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데다, 작품에 등장하는 단어와 문장력, 글의 수준 등이 셰익스피어로 거론되는 사람의 교육 수준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사실 등이 들먹여진다. 그래서 당시 왕자(王子) 수준으로 교육을 받았던 프란시스 베이컨이 바로 그(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추측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셰익스피어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사생아(私生兒)였다는 소문은 상

당히 오래된 것이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평생 독신으로 지내 '영국과 결혼했다'는 평을 듣기도 하는 엘리자베스 1세는 사생아를 몇 명 낳았는데, 1548년 비밀리에 낳은 첫 사생아가 바로 셰익스피어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왕은 그를 낳은 후 귀족 부부에게 양육을 맡겼는데, 셰익스피어 역시 이러한 출생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극 『햄릿』과 소네트(Sonnet, 주로 사랑의 주제를 다루는, 서정시) 등의 작품에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여왕이 한 궁정 신화와 로맨스를 가진 뒤, 임신과 출산 때문에 한동안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졌었다"고까지 주장한다.

만약 위의 주장대로, 셰익스피어가 여왕의 아들이고 셰익스피어가 베이컨과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베이컨이 여왕의 아들이다"라는 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설들은 현재까지 증명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묻혀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

\*본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허위 112신고, 공공재를 낭비하는 범죄행위

112신고는 범죄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성격을 가져 누구나 긴급상황에 신고할 수 있고 특정 개인이 배제되지 않으며, 한 사람이 112에 신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어들지 않는 서비스다. 이처럼 국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지만 허위 신고나 불필요한 신고가 증가하면 경찰력이 낭비되고 긴급 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남지역 112 허위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단순 장난 신고를 넘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성 신고도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까지 초래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는 112신고를 장난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데, 이는 경찰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12 신고는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재이므로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로 이를 낭비하는 행

위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력 낭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경찰

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해 긴급히 112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군가의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112신고는 단순한 신고 전화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긴급 수단임을 명심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를 기대해본다. 구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팀장 황민재 경감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음력 6월 13일)

Grid of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icons and text.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mae Daily News,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with logos for Ex Korea Express and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